

# 태국 관광객 무더기 연락두절... 예견된 무비자 이탈

무안공항 전세기 입국 후 잠적 관광객 위장 '불법 취업' 가능성 무비자 90일 '사증 면제' 약용 법무부, 사전 심사 강화 등 대책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 두절되면서 '사증면제제도'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내린 태국인 관광객 10명이 입국 수속 직후 일행에서 이탈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오전 8시 무안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린 태국인 13명도 입국 수속 직후 무단 이탈한 뒤 중국에 정당한 5일까지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전세기 운항은 지난달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해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태국 관광객 2400여명이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전세기를 이용,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태국과 우리나라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은 비자 없이 가장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며, 전남 방문 일정 동안 도외지역으로 나가는 게 금지된다. 법무 당국은 이들이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 행세를 하며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무안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에도 비상이 생겼다.

앞서 제주와 강원 지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 취업하는 등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6월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 제주 공항에선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상품을 통해 도착한 몽골 관광객 150여명 중 23명이 사라졌다.

법무 당국의 무단 이탈자 적발 과정에서 이들을 도운 취업알선책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했다.

양양국제공항에서도 지난해 10월 플라 이강원이 양양-베트남 노선을 운항한 지 2주만에 베트남 관광객 100여명이 사라졌다.



서구 구립도서관 발간도서 전시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발간도서 전시회가 6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려 시민들이 책을 둘러보고 있다. 40여권이 전시된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무부와 전남도 관계자들은 사전 심사 강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동선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탈 태국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

다"며 "자세한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기림 기자 lotus@jnilbo.com

## "교육부, 지역인재 유출방지 정책 우선해달라"

거점국립대협의회, 전남대서 개최

전남대를 포함한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연합회 결성과 사무국 설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거점국립대의 책무를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6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서는 올해 첫 총장협의회 및 국립대학교병원 이사장협의회를 갖고, 국가거점국립대학 연합회와 사무국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분교/타교

출신 비율 조정 등 고등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총장단은 특히, 교육부와 대화에서 RISE, RIS, 글로컬대학 등 교육부의 대학지원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우선해 줄 것과,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책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남대 정성택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서울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 대학 총장과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건 협의, 교육부와의 대화,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 광주·전남 부주의 화재 잇따라... 1명 사망

담배 풍초·라이터 등서 발화 쓰레기 소각 80대 숨진채로

광주·전남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앞 한 건강원 인근에서 불이났다.

불은 건강원 앞에 쌓여있던 물건을 태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나가는 행인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꽂이에 의해 화재가 발

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2시4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오피스텔 거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며 집기류와 거실 내부 등을 태웠다. 소방당국은 일회용 라이터를 잘못 취급했다는 집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주의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13분께 고흥군 금산면 한 주택 앞 인근 공터에서 A(8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

혔다.

A씨 주변에서는 쓰레기 더미를 태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몸에 불길기 옮겨 붙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